

# Radical Disciple IV.

## 내면의 '부딪힘'을 방지해두면 '분노'가 됩니다.

### 1. 흘러감 vs 부딪힘

#### (1) 영의 속성 - 흘러감

영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영에 대한 바른정의를 하나님의 존재이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사람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즉,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 위에 존재하신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차원 위에 존재하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알 때 '영'의 속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명확히 비교한다.

[고린도전서 2:9-10, 14-15]

9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9절). 그것이 '영'의 일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10절). 그리고 14,15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신령한 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을 알 수도 없지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정도로 명확히 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영의 일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이다. 자유함은 '막힘'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함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이해는 '바람과 물'이다. 특징은 자신의 어떤 형태가 없다는 것이다. 그곳에 가면 그 형태가 된다. 물을 담아놓는 그릇에 따라 물의 형태가 변한다. 그리고 막힘없이 불어오며 흘러간다.

영적 자유함이 주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이들을 묶을 수 없으며,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가치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자유함의 속성이 바로 '진리'이다. '진리'를 알 때 자유해 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진리는 '사랑'이며, 사랑의 속성이 '자유와 평강'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람의 내면은 이미 팔복으로 경작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안에 '갈등, 부딪힘'이 없다.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면에 막힘이 없다. 정서적으로, 생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해'와 수용성과 유연성이 크다. 이해와 수용성의 마음은 성숙함이며 왕의 성품이다. 높이 올라감의 특징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의 폭이 넓다. 영의 속성이 그래서 높은 '차원'이라는 것이다.

#### 1) 자유 2) 여유와 평강 (넓은마음)

영은 속성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숙도를 말한다. 그 마음이 내 존재의 상태이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오늘 내 존재의 실존을 만든다. 그 실존이 열매이다. 사랑이 있다면 오늘 내 실존은 '사랑'이 된다. 그러나 마음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의 '나'이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삶은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과 분명히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 (2) 육의 속성 - 부딪힘

그러나 반대의 경우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내면은 항상 '부딪힘'이 있다. 상황과 환경에 부딪힘이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힘이 있다. 이것이 '갈등'이다.

사실 인간안에 '갈등'이 생겨난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신의 마음'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자아'로 말할 수 있다. 그 자아가 갈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강압에 의해 따라가는 노예와 같은 마음이 아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귀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늘의 가치를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마음, 밭'과 같다.

죄지은 아담, 가인, 바벨탑, 간음한 다윗의 특징은 '부딪힘'이다. 부딪힘은 힘을 소비하게 한다. 부딪힘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 걱정, 근심의 힘은 강해진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내면을 '경직'시킨다. 경직되고 굳어진 마음에서 좋은생각, 감정이 만들어 질 수 없다. 점점 자신이 만든 내면의 벽에 갇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살기 위한 '생존형 인간'이 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된다. 가치도 없다. 부르심도 없다. 기준도 없다.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어필'한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 한다. 그 존재감이 공동체에서 나타날 때 '부딪힘'이 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지 않는 모든 것은 그 때부터 '적'이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현실감 없는 '이상주의자'의 삶을 산다. 내 생각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배척한 것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자기확신이 '이상주의'이다. 그래서 그 확신을 관철시키고자 내가 아니라 '외부'를 변화 시키기로 작정한다.

## 2. 제자 가롯유다의 혁명

제자 가롯유다가 그런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고통받는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괴리감이 가롯유다를 힘들게 했다. 그 마음안에 계속해서 '부딪힘'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과 이상사이에 온 괴리감 때문이다.

이렇게 힘든 이유의 원인은 이들에게 분명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세상이 문제인 것이다. 저들은 가장 미천하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과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유대인' 유다에게 있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마음 안에서 납득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혁명'이다.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혁명은 필수였다.

### \* '혁명가의 세계관'

#### (1) 적을 만든다

자기 프레임이 강하다. 나는 선이고 너희는 악이다. 그래서 내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가 제거해야 할 적이다.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이다. 정체성, 주관성이 뚜렷한 것은 좋다. 그런데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는 공식으로 가면 결국 부딪히게 된다. 혁명의 원리이다. 신앙이 프레임이 되면 '종교'가 된다.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굳어져 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다.

선악은 '극단의 논리'와 다르다. 진리는 선과 악 위에 존재한다. 신앙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앞에 선 종교가 아니다. 그 위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다. 그래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랑이다. 용납받지 못할 죄인이 용납받은 것이 사랑이다. 사망선고 받은 죄인의 프레임을 넘어 존재를 보신 그 사랑이 다시 살 기회를 만들었다. 은혜이다. 은혜가 진리의 개념에 가장 가깝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나누어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최악된 세상을 심판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으셨다. 사랑의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담으셨다. 요한복음 3:16절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겠는가?

## (2) 힘의 논리이다

뒤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세력을 모은다. 흠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이다. 어떤 힘을 모으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열심당원 제자 '유다'이다. 선동가 예수님이 필요했다. 군중을 선동할 예수님의 힘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는? 쓸모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쓸모 없으면 과감히 버린다.

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세계관이다.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것이다. 억울하면 힘을 가지라는 것이다. 철저한 세속주의 세계관이다. 바벨적 세계관이다. 쓸모없는 자는 은전 30의 가치로 하늘의 왕의 가치를 바꾸어 버린다

## (3) 가치를 은전 30냥에 팔아버리는 세상

'가치'를 바꿔 버리는 세상. 돈, 힘으로 진짜 중요한 가치를 쓰레기로 만든다. 남을 돕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인가? 그런데 그런것 해서 뭐하나는 것이다. 나 살기도 힘든데 남 돕자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실의 삶이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는 명제 앞에 인간의 존재를 먹고 사는 본능의 존재로 전락 시켰다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의 고민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하라는 것이다. 공중의 새 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치는 유다가 예수의 가치를 은전 30냥에 바꾼 것과 같다.

## 3. 래디컬은 사랑이다. 진리이다. 그것이 진짜이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래디컬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 세상에 능력으로 표현되는 일이 '래디컬'이다.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일을 해야 한다.

### (1) 십자가 사랑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관계없는 일에도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리더가 된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을 배워야 한다. 더 사랑해야 한다. 더 많이 사랑하라. 중요한 것은 '더' 이다. 사랑의 실재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더 사랑하라. 조금만 더 팔을 벌려 안으라.

[마태복음 5:38-45]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38절은 구약의 율법의 세계관이다 (눈-눈, 이-이). 예수님은 새계명을 주셨다. 사랑의 계명이다. 부딪힘이 가득한 세상을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셨다. 결국 부딪힘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45절). 그 아들이 제자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강력한 래디컬의 모습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의 모습이다. 자신의 의를 항변하지 않으셨다. 대항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보이신 아가페의 희생적 사랑에 오늘날 제국 로마는 무너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 열방에 확장되었다. 그 사랑의 법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의 모든 악한구조는 무너진다. 사랑안에 있는 희생, 용납, 용서, 수용의 속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재가 되어 임한다.